

## 정녕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고 농림부는 각성하라!! -

1. 이제는 등뼈가 통째로 들어와도 만사 오케이다. 정부는 수입위생검역을 위한 국가간 협정 내용을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미국의 호주머니 사정만 생각할 뿐이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되었음에도 수입위생조건을 무시하고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마저도 겨우 20여일만에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의 정부가 말도 안되는 국민건강과 국가주권 포기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 체결의 선결조건이며,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 건강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4. 국민을 광우병 위협으로 내 모는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망국의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국민의 건강과 주권을 미국에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정부와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작태에 대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

2007. 8. 24

한국낙농육우협회